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지브리코

경제의 눈

문화칼럼

남자라서 행복해요?



김신명숙 <작가>

“참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혼자 ‘야동’을 보면서 사정하는 걸 알았을 때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번이지 어제는 정말로 못참겠어서 뛰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상관하지 말라네요. 남자는 다 그런단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보려 했는데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쩌다 부부관계를 시도해 보면 잘 되지도 않고...나도 혼자 해결해야 되는건지, 부부라는 게 어떤 관계인지 골치가 아프네요”

며칠 전 한 30대 후배에게 들은 얘기다. 그런데 이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비슷한 고민들을 여가저가 직간접적으로 자주 접하고 있어 ‘야동 보는 남편’이 직간접적 사회문제가 돼 있다는 느낌, 아니 확신이 든다. 한번도 공론장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지만 야동 뿐인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화상채팅은 물론 성매매까지 할 수 있으니 인터넷이야말로 요즘 가장 각광받는 ‘성인용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정도다.

‘야동’보는 남편들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하고 소설 내용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대학교수가 법정에 섰던 일이 었그제같은데, 정말 세상 초고속 통신망이 무색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이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도 컴퓨터를 켜고 클릭만 몇 번하면 다종다양한 포르노들이 ‘무제한’으

로 쏟아지는 요즘,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성적 자유를 그만큼 더 누리며 확장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즐기고 있는가? 그만큼 억제됐던 성욕들이 해소돼서 성병이나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포르노가 여성을 ‘구멍’이나 ‘가슴’으로 환원시켜 페니스의 쾌락을 위한 ‘상품’으로 유통시키면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잠깐 제쳐놓자. 대신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포르노 때문에 남자들은 ‘남자라서 행복해요’라고 느끼고 있는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자유롭게 은밀하게, 성병의 위험도 없이 손가락 한 두개 움직여 해소할 수 있으니 마침내 ‘남성해방의 극치감’을 맞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사결과가 없으니 실제로 한국남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포르노 문화에서도 우리보다 ‘앞선’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 발표된 조사결과와 분석들을 보면 미국남자들은 결코 포르노 때문에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 온라인섹스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각종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만 봐도.

타임 등 주요잡지에 기고하며 저술활동도 하고 있는 파벨라 풀이라는 여자는 처음 타임지로부터 포르노 취재를 요청받았을 때 ‘많은 미국인처럼’ 포르노가 그리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쟁쟁을 열어보니 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포르노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미국의 주류문화

가 됐을 뿐 아니라 여남관계를 망치고 성적 장애를 증가시키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기대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에 놀란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현실을 최근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 포르노를 즐겨보는 남자들에 대한 보고 내용이 흥미롭다.

고독하고 비인간적인 자위

“그들은 발기를 지속시키고 아내와 성교를 하는 데 문제를 갖고 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이제 진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즐길 수 없는 것이다. 이 남자들은 오직 컴퓨터상의 상업화된 포르노에만 반응하도록 자신을 프로그래밍시켜 버렸다”

우리 사회에서도 ‘야동’에만 반응하고 현실에서도 ‘상업화된 성’만 욕망하며 아내나 여자 친구에게는 성적 흥분이 잘 안되는 남자들에 대한 불만과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직간접적 미국과 별다른 게 없지 않나 싶다. 섹슈얼리티는 사회적 구성물이므로 기술발전과 시대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그 변화를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포르노를 금지하지는 게 아니라 친밀함과 사랑의 교류여야 할 성이 갈수록 ‘고독하고 비인간적인 자위’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우선 ‘발견’부터 해 보자는 얘기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노동계 잇단 파업...경제 어찌란 말인가

이런저런 명분의 파업이 끊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나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파업은 강경일변도로만 치닫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지난달 1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노조, 17일로 무려 49일간 파업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건설 노조, 공장문을 잠근 채 이른바 ‘육체(玉體) 파업’에 들어간 쌍용차 노조. 여기에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보건의료노조, 9월 초에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등. 한마디로 파업으로 날이 새고 지는 형국이다.

물론 노동계의 이 같은 파업은 사업장마다 나뉘는데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사정이나 국가 또는 지역경제는 이렇듯까지 않고 강경일변도로만 치달은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묻고 싶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만 해도 그렇다. 지금까지 여덟 차례나 진행된 부분

파업으로 회사는 720억원의 손실을 입고 오는 21일에는 1천원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협력업체도 이미 170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파업으로 멎든 곳은 회사나 협력업체만이 아니다. 지역경제는 파장이 들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선진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지금에 이른 채 이른바 ‘육체(玉體) 파업’에 들어간 쌍용차 노조. 여기에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보건의료노조, 9월 초에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등. 한마디로 파업으로 날이 새고 지는 형국이다.

물론 노동계의 이 같은 파업은 사업장마다 나뉘는데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사정이나 국가 또는 지역경제는 이렇듯까지 않고 강경일변도로만 치달은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묻고 싶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만 해도 그렇다. 지금까지 여덟 차례나 진행된 부분

당 대표도 못말린 광주시의회 ‘감투싸움’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광주시의회의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 양상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의회는 언제까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할 것인가. 갈등은 의장과 부의장 등을 서로 차지하려는 ‘감투싸움’에 불과하다. 더구나 광주시의회는 의원 19명 중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그런 시의회가 중앙당의 중재마저 거부하고 ‘감투싸움’을 법정으로까지 끌고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 정치를 법의 판에서 따져서서 정치를 법의 굴레에 가둘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은 광주지역 정치권 전체의 정치력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과 지역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 상태에 있고 광주시

의회도 비주류측이 법원에 의장단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민들은 요즘 “가난한 집 먹고 살게 해줬더니 실망감만 주고 있다”는 한 대표의 말을 실감하고 있다.

당내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당면하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는 시의회의 위신과 자치능력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자질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서로 분열돼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는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시의회의 파행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파행이 장기화되면 비난이 중앙당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한 대표의 중재가 실패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력까지 도마탄에 맡겨지는 정치를 법의 굴레에 가둘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은 광주지역 정치권 전체의 정치력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과 지역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 상태에 있고 광주시

無等鼓

바닷고기는 제철에 먹어야 ‘개미’가 있다. ‘5농 6송’(5월엔 농어, 6월엔 송어)가 맛있다. ‘여름 낚지는 개도 안 먹는다’ ‘가을 전어’ ‘전바람 나면 감성어’(겨울엔 감성돔)~갯가 속담은 계절에 따라 살아 오르고 알아 났고와 연관된 것이 많다. 그렇다면 찌는 더위에 먹는 생선은 무엇일까?

도회사람들이 북(伏)달임으로 개와 닭을 찾을 때 어민들은 민어를 먹었다. ‘복더 위에 민어찜은 일품, 도미찜은 이품, 보신탄은 삼품’이라는 연안지방의 식담(食談)도 있다. 민어찜이는 7월부터 시작해 추석을 전후로 끝이 난다. 일찍이 정약전(丁若鏞 : 1758~1816)

은 ‘맛이 달다. 익히거나 회로 먹는다. 창업과정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정한 24개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창업의 길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과장>

볼 수 있듯, 서민들의 고기였다. 흥치·불동거리·보골치·가리·어스래기·민초·개우치·암치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갖고 있음도 그를 반증한다. 연안민들은 소금에 절여서 굵고 튀기거나 오리고 알아 났고와 연관된 것이 많다. 그렇다면 찌는 더위에 먹는 생선은 무엇일까? 도회사람들이 북(伏)달임으로 개와 닭을 찾을 때 어민들은 민어를 먹었다. ‘복더 위에 민어찜은 일품, 도미찜은 이품, 보신탄은 삼품’이라는 연안지방의 식담(食談)도 있다. 민어찜이는 7월부터 시작해 추석을 전후로 끝이 난다. 일찍이 정약전(丁若鏞 : 1758~1816)

은 ‘맛이 달다. 익히거나 회로 먹는다. 창업과정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정한 24개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창업의 길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과장>

은 ‘맛이 달다. 익히거나 회로 먹는다. 창업과정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정한 24개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창업의 길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과장>



민어 찜이는 7월부터 시작해 추석을 전후로 끝이 난다. 일찍이 정약전(丁若鏞 : 1758~1816)은 ‘맛이 달다. 익히거나 회로 먹는다. 창업과정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정한 24개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창업의 길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과장>

기고



김광수

어느 날 무등산 세인봉을 오르고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 길을 오르자 숨이 돌이 스티로폼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그 앞을 지나자 젊은이들은 “아이스끼에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천원을 주고 하나를 샀다. 시중에 비해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청년들과 말을 하고 싶어하였다. 그들은 “2주 전부터 하루 200개씩 400개를 팔아치우고 있다”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일종의 아이디어 창업이라 할 수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는 물론 모든 지자체장들의 최대 현안사항이다.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규모

이후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5.5%로, 일반 실업률(1.6%)의 3배를 넘는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와 취업대상 당사자 모두의 책임은 무뎠할 것도 없다.

물론 일자리창출에 관한 문제는, 외국 산업연수생제도를 감안할 경우,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을 만족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예술분야 등 연구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로 일거리의 지평이 확대돼야 한다.

때마침 광주와 전남이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어 일자리 창출은 그리 어렵지 않을

청년창업, 무등산 아이스끼에

를 확대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메카트로닉스의 발전으로 이어져 되래 일거리를 줄여가고 있는 아이러니를 연출한다.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힘든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대학생이 입학 9년 만에 예비 직장인이 된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입증한 사례라 생각된다.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실업은 15~29세까지의 미취업자를 말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줄곧 8~9%대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지역은 11.2%로 일반 실업률(4.5%)의 3배에 달한다. 전남도의 경우도 2003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려스러운 것은 얼마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은 창업이다. 물론 창업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등산로에서 아이스끼에를 판매하는 것처럼 창의성을 발휘할 정도로, 위험부담이 적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에 옮긴다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용기를 갖고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도 젊은이들이어서 아름답다. 창업과정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정한 24개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창업의 길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과장>

은 ‘맛이 달다. 익히거나 회로 먹는다. 창업과정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정한 24개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창업의 길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과장>

야외공영장, 만드는데만 그치지 말고 활용할 줄 알아야

17일부터 19일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광주 시청 소년음악축제가 열리고 있다.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가 열린다기에 얼마 전에 새로 조성된 야외 공연장이 처음으로 쓰여졌구나 싶었다.

그러나 야외공연장 바로 앞에 따로 무대를 만드는 것을 보고 행사가 야외공연장이 아닌 임시 세트장에서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상무지구에서 사는데 시청 야외공연장이 생기고 난 뒤 한 번도 이 시설이 사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말 멋진 것 지어놓고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야외공연장의 공사비용만 25억원이라고 한다.

시설만 지어놓고 그에 걸맞은 행사를 치러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서 항상 문화수도를 위해서는 인프라도 우선이라고 말만 앞세워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인프라 조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설활용방안과 행사, 전시기획능력을 먼저 키워야 하지 않을까?

▲송우림·광주시 서구 치평동

의료칼럼



김성훈

공자(孔子)의 공손추(公孫丘) 상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 때 어떤 농부가 힘들게 논에 묘를 심었는데, 그 모내기한 쪽이 아무리 보아도 남의 묘보다 작고 도무지 자라지 않는 것 같아 시름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다른 논의 벼보다 빨리 자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농부는 ‘벼의 마디를 하나씩 뽑아주면 키가 금방 커지겠군!’이란 생각이 무릎을 탁 쳤다. 하루 종일 묘를 하나하나 뽑아서 잡아 늘려 준 농부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족에게 “묘가 자라는 것을 도와줬다”고 자랑했다. 가족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논에 가보니 줄기가 늘려 뽑혀진 벼는 이미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었다.

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키가 작은 아이들이 무조건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키가 쑥쑥 크는 것도 아니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이 결핍되었거나 염색체 이상으로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왜소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이다. 키가 작아도 몸이 정상인 사람은 성장호르몬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의 외모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집착이 아이들의 체력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체격은 커졌는데 그 체격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기운인 체력과 질병에 저항하는 면역력이 모자란다. 아토피나

성장클리닉 유감(遺憾)

이 일화에서 ‘알묘조장’, 즉 조장(助長·도와서 성장시킨다)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도 그 농부처럼 묘가 더 잘 자라라고 마디를 뽑아주는 일을 해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아이들의 건강은 돌봐주고, 일단 키워 놓고 보자며 아이들의 키 키우기를 조장(助長)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의 작은 키에 잠을 못 이루는 부모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성장클리닉을 찾아 호르몬 주사를 요구한다. “더 컸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바람은 끝도 없다. 1년에 대략 1천만원이 들어가는 성장호르몬주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계모임까지 만들었다는 한 엄마의 하소연은 차라리 눈물겹다. 아이의 키는 더 이상 아

알레르기나 같은 만성증상을 가진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성인병을 가진 아이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앞으로 키 체중의 체격은 더 좋아지겠지만, 체력과 면역력이 더 떨어져 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화학비료를 주고 농약을 하여 겉보기만 좋게 키운 채소보다는 유기농 비료를 키운 채소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맛도 좋고 영양도 많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았으면 한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야 할 때이다. 면역력도 강하고 뼈 속까지 튼튼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겉모습은 커지고, 속이 알차지 못한 키성장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한의원 원장>

개방운동장, 주민위해 야간조명 설치했으면

요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짙은 해는 운동에는 달리기를 비롯해 빨리 걷기, 배드민턴, 공놀이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집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조명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해하고 있다. 어두운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뒤섞이다 보면 자칫 사고 위험도 있기 마련이다.

학교 운동장까지 야간조명을 무슨 돈으로 설치할 것이며, 그 전기료는 누가 감당하는지는 모르시도 있지만 야간 2시간 정도면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또 건강을 유지할수록 병원 가는 횟수도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이왕 주민들을 위해 개방했다면 조금만 신경을 써 주민들이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 ▲임중선·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孝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